

“다양한 도전, 학생들에게 동기 부여 되기를”

연구원·소설가 거쳐 전남대 교수 된 최유안씨

독일 유학·동아일보 신춘문에 당선...KDI서 유럽 지역 연구 “시민 연대 등 통해 지역 특색 인정하고 서로 신뢰 쌓았으면”

“고향으로 돌아와 후배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뻐요. 저의 사례가 학생들에게 동기 부여가 된다면 더더욱 감사할 일이지요.”

전남대 독일어문학과 교수로 부임한 최유안(39) 소설가. 그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운이 좋았다”며 자신을 낮췄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으로도 근무했던 최 작가는 남다른 이력을 갖고 있다.

전남대 독일어문학과를 졸업하고 독일로 유학을 떠나 예나대학을 졸업했다. 서울대 국제대학원 졸업, 연세대에서 유럽지역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리고 KDI에서 글로벌 거버넌스, 유럽 지역을 연구했다.

이력만으로도 ‘딱 찬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으로 성실하고 지적 호기심이 많다는 사실도 보여준다. 그러나 ‘모범적인’ 이력 뒤에 붙은 소설가라는 타이틀은 그를 한가지로 규정할 수 없게 한다. 2018년 동아일보 신춘문에 중편이 당선돼 문단에 나왔으며 최근에 장편 ‘백 오피스’를

썼다. 어쩌면 소설을 쓸 수밖에 없는 삶의 행로를 걸어온 것도 같다.

흔히들 ‘국립대 정교수 임용은 하늘에 별 따기’처럼 어렵다고 한다. 국립대 교수가 지니는 상징성, 우리사회에서 선망 받는 직업으로서의 위치 등을 고려할 때 분명 부러움의 대상이 될 법하다.

분명한 것은 오늘의 그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도전이 만든 ‘결과물’이라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대학시절은 어두웠다. 여유가 없어 학교에 무엇이 있는지조차 몰랐다”는 의외의 답이 돌아왔다.

“저의 20대는 암담했습니다. 일단 광주에서 벗어나 넓은 세계로 나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타 지역에서 과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이룰 수 있을까 라는 고민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대학시절 그는 어렵곳이나마 독일어와 함께 독일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전남대를 졸업하고 독일로 유학을 떠나 경영학을 공부한 것은 그 때문이다. 방송국에서 기술 통역을 하며 독일에 대해 다면적으로 볼 기회가 있었다. 한국에 들어



와서는 국제지역학 석사과정을 공부하고 박사과정은 유럽지역학을 전공했다.

“독일은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우선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회가 ‘사람이 우선이다’라는 가치를 견지하지요. 성장보다는 함께 살고 연대하며 협치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최 교수는 지난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독일 상황은 좋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통일 이후 꽤 오랜 시간 국가적으로 갈등과 고통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 내부의 공동체성, 시민의 연대” 등을 통해 오늘의 독일을 일궈냈다고 부연했다.

그렇다고 무조건 독일을 배우는 것은 만사가 아닐 터다. 그는 “한국의 실정에 맞는 고민과 배움이 필요하다”며 “국민에 대한 신뢰, 정부에 대한 신뢰를 얻는 데 적잖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실 어렵던 시기도 없지 않았다. 지난해 소설을 쓸 작정으로 무작정 KDI를 그만뒀을 때 주위 사람들이 무모하다며 말했다. 그러나 “성격상 하고 싶은 것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탓에” 스스로의 결정을 믿기로 했다. 얼마 후 전공 분야인 독일 지역학을 한다는 교수 채용 공고를 접한 것이 오늘에 이르렀다. 앞으로 최 교수는 독일 지역학이라는 렌즈를 통해 우리 사회의 지역성 내지는 방향성을 좀더 깊이 연구하고 공부할 계획이다.

“이심대 때는 광주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그렇지 않더군요. 지금은 다각도로 보게 됩니다. 무엇이든 오래 두고 보면 새로운 가능성과 고유의 매력을 알게 되나 봅니다. 독일 사회처럼 우리 사회가 저마다 지역의 특색을 인정하고, 또한 그것을 서로가 지켜줄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으면 합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공군 1전비, 신입 병사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공군 제1전투비행단이 최근 새로 전입 온 병사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이론·실습교육, 평가를 거쳐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심폐소생술과 관련된 이론 전반을 교육했다.

항공의무대대 반오송 대위(학사 1437)는 “빠르고 정확한 심폐소생술만이 심정지 환자를 위급상황에서 구할 수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교육생들이 적절한 심폐소생술 방법을 숙지해 비상상황에 전우를 살릴 수 있는 골든 타임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장수영 지스트 연구교수, 세종과학펠로우십 선정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차세대에너지연구소 장수영(사진) 연구교수가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2022년도 신진연구 세종과학펠로우십에 선정됐다. 세종과학펠로우십은 한국연구재단의 과학기술분야 기초연구사업 중 하나로,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또는 만 39세 이하인 젊은 과학자가 핵심 과학기술 인재로 성장 및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수영 연구교수는 ‘유기태양전지 안정성과 효율을 향상시키는 비휘발성 고체 전해질’ 과제를 제안해 향후 5년간 총 5억 3000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채희종 기자 chae@

‘BTS 아버지’ 방시혁, 서울대 명예박사 학위

그룹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하이브의 방시혁(사진) 이사회 의장이 서울대 명예박사가 된다.

15일 서울대는 최근 방 의장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하기로 했다. 대중문화 분야 인사 가운데 서울대 명예박사 학위를 받는 사람은 방 의장이 최초다. 서울대 학위 수여 규정에 따르면 학술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했거나 인류 문화 향상에 공적이 큰 사람은 명예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다. 방 의장은 방탄소년단을 키워내는 등 한류 열풍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기여를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광주시구청장협의회 ‘동해안 산불’ 이재민 돕기 성금



광주시구청장협의회(회장 문인)가 최근 동해안 산불 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해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1000만원의 지원금을 전달했다. <광주 북구 제공>

조선대-아이피샵 문화예술 NFT 인력양성 협약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난 14일 (주)아이피샵과 산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NFT 관련 사업 활성화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고용시장 활성화, NFT 문화예술 비즈니스 협동과정 개설 및 운영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조선대 제공>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01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 빌딩 9층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1 FAX 062-222-4938, 222-4918

알림

- ▲광주 북구민을 위한 개인 무료 법률상담소=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저소득층, 영세민, 교도소 복역자, 사회취약계층자 무료상담 010-6444-8572.
- ▲광주시·전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무료 상담=코로나19 등 각종 재난으로 심리지원을 위한 무료상담 1670-9512.
-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프로그램 신청=취업상담, 직업훈련, 일자리알선, 취업교통비 지원 등 취업지원 및 긴급원호, 숙식제공, 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 ▲청소년전화 062-1388=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시간 전화상담.
-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노인학대 상담, 학대피해노인전문상담, 노인학대 신고=언제든 노인학대로 힘들어 하고 계신 분들, 노인학대를 목격하시거나 알게 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주세요 연중무휴, 24시간 전화상담 1577-1389.
-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 상담&주간프로그램 운영=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대상 062-526-3370.
- ▲북구열린마음 상담센터 무료상담=정신건강&중독 무료상담(음주·우울·불안·스트레스·치매·인터넷)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무료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마음건강주치의연용=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를 통한 중독·자살·

우울 문제 등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5시 무료 상담 062-654-3802.

-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여,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 ▲사람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터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입관용품무료지원, 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 ▲지역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지역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모집

- ▲플랫폼창업희망자 교육생 모집=스마트폰 사용 가능자 수시모집, 5-6명 이면 개강, 광주대성초등학교 건너편, 플랫폼창업동호회 062-511-0030.
- ▲신창동 보은사 목련합창단 단원모집=성악 또는 찬불가 배우기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남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정기연습, 신창동 대광로제비마을아파트 후문 80미터 010-4622-7838.
- ▲정보기술분야 직업훈련생 모집=15세 이상 장애인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산 사무행정. 교육기간 1년. 교육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전남직업능력개발원 061-320-7024.
- ▲시니어플래너지도사(자격반) 모집=시·군·구 지부모집,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010-5522-9700.
- ▲인생이모작 카운슬러 모집=인생2막 생애재설계, 은퇴 신중년 상담에 관심 있거나 교육경험이 있

는 48~58세 남아 모집, 실버제조, 치매예방 놀이, 노후생활 관련 강사 등, 한국50+ 희망발전소 010-2626-5018.

-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봉사자 모집=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만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062-232-4953.
- ▲한국범죄방지지도사 자격증 무료 취득=성별, 연령 제한 없음. 광주시 동구 금남로 5가 169번길 호남본부 062-515-7521.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전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351-1206.

부음

▲서덕례씨 별세, 윤형혁(KBS 순천방송국 기자)씨 모친상=발인 16일(수) 오전 11시 순천 정원장례식장 202호 061-754-4444.